

단통법 11년만에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불 붙었다

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폐지...고객 유치 경쟁 심화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금들 허용... ‘공짜폰’ 등 출혈 경쟁 우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지정해 유통 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통사들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

한했던 각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들은 지점별로 자유롭게 추가 보조금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50만원으로 가정한 단통법 폐지 전에는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이 최대 7만 5000원까지 가능했지만, 상한선이 사

라지면서 유통점별로 추가 보조금 규모가 대폭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가했었던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금들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허용되며, 단말기 출고가 전액 지급, 단말기 출고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 등 이른바 ‘공짜폰’과 ‘마이너스폰’ 등도 유통점에 따라 가능하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수납해야 하는 통신 요금을 최대 25%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과 추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할 수도 있다.

앞으로 유통점별 추가 보조금 수준은 초기 시장 분위기로 틀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 직후에는 보조금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날부터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 사전 예약 개통이 개시됨에 따라 유통점들이 추가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도 있다.

일부에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유통점별 추가 보조금이 달라지는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

도 있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의결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제외하면 업계의 자율 규제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으며,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 TF’ 운영 및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전체 1위

DC 퇴직연금 수익률도 4위 기록

광주은행은 “올 2분기 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최근 1년간 개인형 IRP 실적배당형 상품의 적립금은 48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수익률은 7.96%로 전체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익률도 5.60%로 전체 은행권에서 4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관련 상품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광주은행이 2023년 지방은행 최초로 퇴직연금 운용가능 상품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고, 시장 유망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관청한 결과로 분석된다. 더불어 퇴직연금 전문가를 활용한 수익률 컨설팅 서비스 강화 등 광주은행의 운영 방침이 수익률 성장세를 가속화했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광주은행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고객님들의 노후 자산 확보 및 은퇴준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중기부,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 수해 복구 지원

안전점검부터 전기·가스 복구

정책 자금·대출 만기 1년 연장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역대급 폭우 피해를 입은 광주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광주 양동시장 2점포, 말바우시장 2점포 등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피해·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부터 전기·가스시설 복구 등을 지원한다.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

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신청하면 되고 소진공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재해 확인증 발급 상인 대상으로는 기존 소진공 융자 대출 만기 1년 연장도 지원해 피해 상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 복구 소요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비율은 일반 보증(85%)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 (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and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배추 31%·돼지고기 9.5% ↑ ...6월 생산자물가 0.1% 상승

농림수산물 많이 올라

지난달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0.2%)과 5월(-0.4%) 연달아 내렸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2.4%), 농산물(1.5%)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이 0.6% 높아졌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 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2.4%)를 중심으로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 위탁매매 수수료

(10.8%) 등이 크게 올랐다. 물오징어(-36.3%), 고등어(-27.6%) 등은 떨어졌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 등이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6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3% 하락했다. 서비스(0.2%)가 올랐으나 공산품(-0.5%) 등은 내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모건스탠리 “한국, 건설이 성장 저해...선제적 금리인하 중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건설 부문 침체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저해(hamper)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1일 발간한 보고서 ‘탄성적인 건설 과제’에서 “불리한 수급 상황에서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3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건설 부문이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다시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로 관세와 소비 부진에 초점이 맞춰져 왔

지만 “성장에 발목을 잡는 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내 건설 부문”이라며 “이 부문의 둔화는 만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 주택 가격 전망도 좋지 못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로 모멘텀이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 속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이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는 건설 수주 및 건설 활동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2차 추경을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은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회복은 4~8 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안화적인 통화 배경은 건설 부문의 회복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기아, 대미 전기차 수출 88% 급감...현지생산·판매 부진 탓

연간 2만대 수출도 흔들

울산공장 EV라인 올 5번째 중단

미국 현지 생산과 판매 부진 여파로 현대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작년 동기(5만9705대)보다 88.0% 감소한 7156대에 그쳤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가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통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 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 2049대 등 이었는데 올해는 2만대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에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현지 판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하고 상반기 동안 아이오닉 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했다.

기아도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해 올해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여기에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고전하는 상황이 겹치며 전기차 수출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 상

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작년 동기보다 28.0% 감소했다.

미국 내 전기차 총판매량이 5.2% 증가한 가운데 역성장으로,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2021년 이래 처음이다.

올해 남은 기간 전망은 더 어둡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로 조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가 중심인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작년 현대차그룹의 전체 전기차 수출(25만4967대)의 36%를 차지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5번째 휴업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코스피 불장에 ‘金’ 외면하는 재미들

16개월만에 순매도 전환

중국발 수요 둔화 가격 횡보 원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46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하는 등 ‘불장’이 이어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총 159억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특히 21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1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KRX 금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끊긴 것이다.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은 1조4660억원에 이르며, 이에 힘입어 KRX 금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7.3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 성장을 구가했다.

개인은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1513억원을 순매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3월에는 한 달 사이 3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4월 436억원, 5월 906억원, 6월 607억원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크게 줄다가 이달 들

어 때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제 금 시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온스당 2600달러 대 초반이었던 국제 금가격은 올해 4월 22일 기준 온스당 3487.9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뒤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369.86달러 수준이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격이 횡보하기 시작한 이유는 2024년부터 상승을 주도했던 중국의 매수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체는) 바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 금현물 ETF를 통해 63t에 이르는 금을 매입했는데,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금에 개인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본 중국 정부 당국이 지난 5월부터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69.94	(-40.87)
↓ 코스닥	812.97	(-8.72)
↑ 금리 (국고채 3년)	2.463	(+0.007)
↑ 환율 (US D)	1388.35	(+0.15)
〈오후 4시 37분 기준〉		